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되지 않은 양측성 거대 신혈관근지방종의 파열에 관한 증례 1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종호, 방기태, 정진욱, 조성민, 전석재, 박 효, 이민지

Spontaneous Rupture of Bilateral Giant Angiomyolipoma of Kidney not Associated with Tuberous Sclerosis: A Case Report

Jong Ho Shin, Ki Tae Bang, Jin Uk Jeong, Seong-min Jo
Seok Jae Zeon, Hyo Park, Min Ji Lee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배 경: 신혈관지방종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80%,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된 경우가 20%이나,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80에서 90%가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하여 발생한 신혈관지방종의 파열의 증례는 국내에도 보고된 바가 있다. 하지만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되지 않았으나 양측성으로 발생한 신혈관근지방종의 파열에 관한 증례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증 례: 75세 여자환자가 약 3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측복통을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진통제 투여 받아 복용 중 증상 호전 없이 악화되어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 하였다. 환자는 위에 발생한 위장관간질종양으로 약 6년전 타병원에서 위절제술 시행 받은 병력 있었으며, 수술 전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상 우측신장에 약 8×5×10 cm의 단일 신혈관지방종, 좌측신장에 최대 약 4 cm의 다수의 신혈관지방종 발견되었으나 특이 증상 없어 간헐적으로 복부전산화단층촬영 시행하며 경과 관찰 중인 병력 있는 자로, 신혈관지방종 진단 당시, 피지선종, 간질 및 정신박약의 병력등 결절성경화증의 임상적 증거 보이지 않았고 결절성경화증의 가족력 또한 없었다. 환자는 급성병색 보였으며 심박동수 110회의 동성빈맥 보였으나 기타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다. 검사실 소견상 혈색소가 9.4로 감소되어 있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복부전산화단층촬영상 9.6×7.6×11.8 cm의 파열된 우측 신혈관지방종 및 종양 내,피막 하,신주변에서 혈중관찰 되었으며, 좌측신장에서 최대 4.7 cm인 다수의 신혈관지방종 관찰되었으나 파열은 없었다. 치료로서 우측신장의 대한 선택적 경동맥 신색전술을 시행한 후, 혈색소수치 상승 및 증상호전 확인하여 제 11병일 째 퇴원 하였다.

결 론: 저자들은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되지 않은 양측성 신혈관근지방종의 파열 및 선택적 신색전술에 의한 치료에 관한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Key Words: 신혈관근지방종, 위장관간질종양, 결절성경화증
Angiomyolipoma, GIST, Tuberous sclerosis